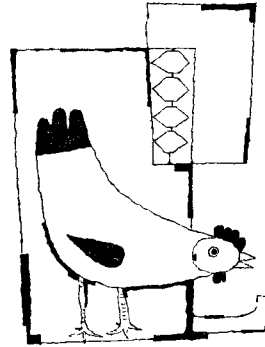


초심자를 위한 육추관리

- .. 좋은 병아리에 좋은 사료와 계사를 갖추고 있더라도 육·○
- 추관리 기술에 따라 사육성적은 달라진다. 병아리는 구...○
- ..인 부화장의 위생관리를 고려할 것이며 사료는 양질의 사...○
- 료를 생산하는 메이커를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육추관리...○
- ..만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문제 하나 하나를 경우 ·○
- ..마다 적절하게 해결해 나아가는 기술이 양계경영에서 가...○
- 장 중요한 자본이다. 즉 훌륭한 관리란 작은 문제를 미리...○
- ..발견하여 큰 화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으므로 관리자의 ...○
- 세심.. 작은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세심한 주의와 날카로 ..○
- 운 판단이 병아리의 생육을 좌우 ..다. 병아리의 성장용아...○
- ..나 성계시 산란율은 육추관리에 따라 좌우되므로 결국 육...○
- 추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



김 재 현
(대성미생물연구소)

입추계획

미리 육추관리 계획을 설정하고 하나 하나 실천해 나간다.

계획에 따라 무엇을 할 것인가를 확실하고 준비한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예컨대, 부리자르기 백신접종, 모이통 교환, 온도조절등 미리 계획하여 시행토록 한다. 또 중요한 것은 접종계획에 따라 투약을 실시하도록 한다. 접종시 주의사항이나 약 품취급 요령 등을 미리 주지하여 모든 준비를 한다.

육추실

성공적인 육추는 부지런한 관리자의 손에 달려 있으나 육추실의 환경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① 육추실은 격리되어야 한다.

육추실은 다른 계사와 멀리 떨어진 곳에 건축해야 한다. 최소한 성계사와 300자이

상 떨어져야 한다. 물론 거리가 멀면 멀수록 방역상 유리하다. 또한 육추실은 울타리를 해두고 출입구를 통제해야 한다. 이 모든 조건은 병아리의 육추기간중 질병의 침해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그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② 올인 올아웃(all in all out)

육추실은 격리되어야 하고 또한 한 육추실에는 7일 이상의 일령차이를 두고 입추육성하면 안된다. 그 연령차가 크면 클수록 접종계획을 일시에 실시할 수 없게 되며 큰 차질을 가져온다. 올인 올아웃이란 한번에 입추된 병아리가 동시에 이동하고 또 동시에 계사를 비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육추실을 비우는 시간이 길수록 질병 감염기회는 감소한다.

입추전 준비

① 계사 및 기구의 청결

병아리가 육추실에서 올라온 뒤 즉시 육추실 내를 청소하고 기구를 세척하며 소독한 후 다음 병아리 입추를 기나려야 한다.

청소→세척→건조→소독을 하여 최소한 2주가량 공간을 두었다가 다음회 입추하게 되면 큰 지장이 없다. 소독약제로 병원균을 죽이고 쉬는 기간동안 미생물의 발육과 번식을 단절시켜 목적이 달성 된다.

청소절차는 ① 모든 깔짚을 제거한다. 사용된 모든 깔짚은 육추사로 부터 멀리 운반해 버린다 ② 계사내부를 긁어 쓸어낸다. 계사바닥, 벽, 기구에 붙은 모든오물을 닦아낸다. 특히 계사 내부 벽 등을 세척하는데도 고압분무기를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이후 소독수를 정확한 농도로 충분히 젖도록 살포한다. ③ 기구는 오물을 긁어 내고 물로 씻은후 담그어 건조시킨다. 가능한 모든 기구는 계사외부에서 세척:소독한 후 계사내부로 들여 놓는다

④ 훈증소독

육추실이 밀폐된 시설이라면 훈증소독을 권장한다.

포름알데하이드(포르마린) 개스는 계사구석 구석까지 스며들 수 있으므로 세균박멸에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100입방척 육추실의 경우

포르마린 120cc 과망산간카리 60g

② 소독조 설치

육추실 입구, 정문에는 소독발판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소독수를 갈아준다. 실내 소독을 해놓고 소독조가 없으면 모처럼의 실내 소독이 무효로 돌아간다.

육추실, 소독후 1~2주간 비워둔다. 물론 사료장고, 모이통, 배합통 등을 청결하게 세척, 소독한다. 또한 작업복도 육

추실마다 갈아 입도록 준비한다.

③ 기구점검

병아리가 입추되기 전 모든 기구를 하나 하나 점검한다. 스토브, 연통, 전기시설, 환기창, 모이통, 온도계, 환기모타 등 다음 계사주변 청소, 통로 등의 오물제거, 특히 차량통행이 원활하도록 도로보수, 여름철 계사주변의 잡초제거, 하수구 점검등은 빼놓을 수 없다.

몇수나 입추할 것인가

육추실의 종류, 병아리의 종류(육용계, 채란계)또는 계절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필히 명심할것은 적정 수수를 무리하게 넘는 일이 없도록 입추해야 한다. 왕왕 입추수의 무리로 실패하는 양계장을 본다.

보통 우리나라의 실정은 육추실에서 육성기간을 보내는 수가 많다. 즉 빠르면 10주령 정도에서 케이지에 올리나 늦으면 보통 14주령 내지 17주령까지 기르는 수도 있으므로 이에 따라 면적당 적정수수를 계산해야 한다. 수용수수가 많아 밀사하게 되면 폐사율이 증가하고 발육이 불균형해지며 질병 침해의 위험성이 커진다.

보통 입추 첫주간은 폐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3%가 넘으면 안된다. 만일 3%이상의 폐사가 나올 경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육추기간 필요 면적

	1 m ² 당 수용 수수
채란계	13~14마리
육용계	12 마리
육용종계	10 마리

육추기간을 5~6주로 보았을 때 그 기간 필요한 면적은 앞의 표와 같다.

육추실 칸막이

넓은 육추실은 칸막이를 하여 한 육추용 연탄난로에 500수 규모로 입추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병아리는 미리 미리 주문할것

병아리는 약일개월전 미리 주문하여 부화장의 배부계획과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성수기에는 주문을 미리해도 도착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항상 부화장과 긴밀한 연락을 해야 한다.

입추예정 수수를 정확히 계산한다.

적정 사육수수를 정확히 산정한다.

(예) 성계시 필요한 수수를 4,000 수라 볼 때 90% 생존율로 보면 병아리주문은 $4,000 \div 90 \times 100 = 4,444$ 수에서 덤으로 받는 약 3%의 수수를 빼면 4,350수이다.

육추시 필수품

준비성 있는 입추는 병아리 육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관리자는 사전에 아래 열거하는 물건들을 준비해 놓는다.

① 깔짚

깔짚은 병아리 보온과 실내습도 조절역할을 한다. 깔짚은 운반과 적재시 곰팡이가 서식하여 썩는 수가 많다 그 재료로는 톱밥, 벧짚, 왕겨등이 있겠으나 왕겨가 무난하리라 본다.

그러나 이 깔짚도 관리자의 손에 달려있다. 적당한 습도 유지를 위해 가끔 뒤집어 준다든지 부족한 곳은 추가해 주고 물통주변의 젖거나 썩은 깔짚을 교환해 주는 것은 관리자의 기지에 있다 가끔 입추전 난

로를 피워두어 깔짚이 너무 건조하여 습도가 낮으므로 병아리들이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경우를 본다. 또한 일주일이나 지나면 물통에서 흐른 물로 깔짚이 젖어 병원균의 발육이 좋은 상태로 된다

② 육추난로와 울타리

울타리와 샷샷은 열발산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보온하기 위한 기구들이다. 샷샷의 종류나 계절에 따라 울타리의 크기를 조절한다

여름철에는 샷샷끝에서 90cm정도, 겨울철에는 75cm정도 띄워 둘러친다. 높이는 45~50cm로 재료는 함석이나 보드박스 등 무엇을 이용해도 좋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샷샷은 너무 좁아 병아리가 모두 그 밑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큰 단점이다.

울타리는 겨울철에는 9인, 여름철에는 6일정도 설치한 후 철거한다

③ 유인등

병아리가 샷샷 밑에 있는 난로불 인식하도록 해주기 위해 유인등(5촉짜리 붉은등)을 샷샷 밑에 2~3일간 켜준다. 특히 겨울철 입추시 많은 도움이 된다.

환기, 온도, 물

병아리는 입추 며칠간 환경변화에 예민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즉 환기, 온도, 습도, 먼지, 물. 사료에 따라 성장율이 좌우된다

육추실 환기

입추후 며칠동안 가능한 실내환기는 제한한다 실내 먼지가 많으면 환기를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 짧은 시간동안 해준다 입추 4~5일간 실내 온도는 24℃를 유지

해야 하고 그 후 18~21℃ 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방육추사는 커튼을 이용한 환기를 할 수도 있고 지붕을 통한 간접환기법도 있고, 환기모터를 이용하는 방안도 있다. 육추실의 환기는 공기교환이나 캐스 제거보다 먼지 제거에 더 큰 의의가 있다

점등

병아리는 환경을 익히는데 처음 2일간이 제일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입추 48시간 동안 종야 점등해 주어야 한다. 밝기는 1m² 당 30룩 전구면 족하다. 무창이나 밀폐 계사면 낮에도 점등해야 한다. 그러나 보통 육추기간중 밝기를 제한하여 어둡게 해주면 닭이 쪼으는 성질(카니발리즘)을 예방할 수 있다

육추기 온도

육추기의 온도는 육추기(부부더)에 따라 다르므로 그 온도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개 깔짚에서 샷갓끝에 매단 온도계로 온도를 측정하여 32~35℃ 이면 좋다. 병아리가 성장함에 따라 매주 2.8℃씩 낮추어 준다

· 입추 2~3일간은 온도계가 필요하나 그 후부터는 온도계가 없어도 병아리가 온도계 역할을 한다 즉 추우면 샷갓 밑으로 물리고 더우면 울타리쪽으로 흩어진다.

우리나라 처럼 연탄육추기에는 필히 보조 난로가 있어야 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추위로 압사하는 경우가 많다.

급수기의 수

입추 2주간까지는 100마리당 2개의 원형물동이 필요하다. 물통을 샷갓 바로 밑

에 고르게 설치하여 병아리가 마시는데 장애가 없도록 높이를 조정해 준다. 도착 2일이 지나면 물통 높이를 2,5cm가량 으로 높여준다 물통에 담길 물량보다는 마실 수 있는 둘레의 길이가 중요하다. 병아리 도착 24시간전에 물을 채워 육추기 온도로 따뜻하도록 해 준다. -약18℃ 내외- 물은 반드시 신선하고, 광물질이 많거나 경수는 피한다. 보통 양계시 물을 소독한 후 공급하는데 병아리 때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왜냐면 각종 접종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만일 소독수나 수도물을 사용해야만 할경우 접종전에 물통을 샘물로 깨끗이 씻은후 시행한다. 또는 수도물에 탈지유를 물 1바케스당 10g정도 풀어 사용한다

물과 사료

병아리는 도착 즉시 물과 사료먹는 법을 익혀주어야 한다. 보통 부화 24시간 이내 물과 사료를 즉시 공급한다. 전에는 물을 먼저주고 서너시간후 사료를 주었으나, 근자에는 동시에 빨리 급이시키는 것이 좋다는 이론이 압도적이다.

물은 다음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① 폐나 기낭을 통한 발산으로 체온조절
- ② 체조직을 형성
- ③ 사료를 연화시켜 식도를 넘어가도록 돕고
- ④ 피나 림파구성에 중요하다.

급수기 청소

매일 급수기는 부러쉬로 닦아낸다. 급수기를 소독수로 닦아내면 질병전파를 예방할 수 있다.

급수시 주의할 것은 급수기가 부족하던가, 부적합하던가, 급수불 제대로 하지않

아 병아리가 탈수 현상을 일으켜 폐사가 생기는 수가 있으므로 육추 2~3일 간은 물을 잘 먹도록 해준다.

여름철 입주시 병아리는 사료는 잘 안먹지만 물은 많이 먹게되므로 자주 공급해준다.

사료

요즘 배합사료공장의 발달로 관리자들은 사료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나 사료를 저장할때 부패하거나 급여후 변질되어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자주있다.

우선 사료는 신선해야 하며 따라서 초생추 사료는 많이 쌓아둘 필요가 없다. 병아리 도착후 1주일간은 병아리박스 뚜껑이나 깨끗한 난좌를 이용하여 사료를 뿌려주는 것이 좋다.

사료를 처음 먹기 시작할 때는 실내를 약간 밝게 하여 모이통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육추기의 온도를 높여주어 병아리가 샷갓 밑에 머물지 않도록 해준다. 모이통을 샷갓밑에 두는 일이 없도록 한다. 간혹 병아리는 먹는 법을 몰라 굶어 죽는 수도 있다. 이것은 병아리 소낭을 만져보면 안다.

만일 병아리가 사료를 안먹을때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즉시 개선해 주어야 한다.

사료가 변패했거나 깨스가 차있거나 습도가 부족하거나 주위에 소음이 많던가 실내온도가 부적합하면 잘 먹지 않는다.

병아리 도착

병아리 도착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리자는 일일이 점검해야 한다.

소독된 육추실을 자물쇠로 채우고 아무도 출입치 못하도록 한다

사료 운반차나 병아리 운반차는 분무기로 소독하고 특히 병아리 운반인은 신과 옷을 갈아입고 손을 씻은후 병아리를 담은 박스는 모두 불태워 버린다.

병아리 도착시간

가능한 병아리는 아침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다. 낮에는 먹고 마시는 것을 익히도록 한다. 그러나 여름철에는 저녁 늦게 시원한 시간에 운반하는 것이 좋다. 여름철에는 병아리가 도착 즉시 상자뚜껑을 열고 병아리를 풀어 해쳐 놓는다.

최근 부화장에서 모두 마렐백신을 하여 병아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왔으므로 도착 즉시 수용성 비타민제를 물에 타서 주도록 한다.

육추시 특수 관리

·육추기간중 이 특수관리로 인하여 병아리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가하게 되므로 극히 조심스럽게 관리하여 이 피해를 최소화으로 경감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리자르기

병아리의 꼬이는 악벽은 부리자르는 방법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다.

부리자르기는 미국의 경우 5일령에도 실시하나 보통 2주령 전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어리면 어릴수록 부리자르기는 힘드나 스트레스는 덜 받는다. 크면 클수록 출혈이 심하고 자르기 힘들다.

부리는 잘못 자르면 아니 자르는것만 못하다. 요즘은 전기 부리자르기(데비카)가 시중에 판매되므로 조금만 익히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부리자르기는 닭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므로 스트레스가 중복되지 않도록

추천이파면 무엇이든
협조해 드립니다

록 한다

육추시 접종

뉴캐슬은 3일령에 생독으로 비강, 14일령에 생독으로 음수, 28일령에 생독으로 음수 또는 사독 0.5cc씩 주사하여, 60일령에 사독 1cc 주사하고, 그 이후는 매 3개월마다 사독 주사한다.

계두는 계절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으나 가장 적당한 시기는 8주령과 12주령 사이이다.

접종은 닭에 큰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다. 접종후 병아리가 사료를 잘 먹지 않고 난로 주위에 모여 있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은 증거이다.

접종시 난로의 온도는 더 높혀주고 전후하여 수용성 비타민이나 예방 항생제를 계속 투여한다.

꼭시듬 예방

육추기간중 역시 큰 문제거리는 꼭시듬 병이다. 물론 사료메이커에서 초생추사료에 항꼭시듬제를 첨가한다.

비록 사료에 정량 첨가되었다 하더라도 병아리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왕왕 발생하는 수가 많다.

꼭시듬 예방은 육추관리를 세심하게 하여 병아리가 일찍 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삼송가축약품상사

취급종류

(1) 축산약품

- 소독제
- 예방약
- 치료제
- 기타약품 일절

(2) 축산기구

- 사료통, 물통
- 케이지
- 연속주사기
- 배합기
- 계란선별기
- 데비커
- 기타 기구 일절

(3) 축산물 시세속보

- 육계 { 하이브로
 세미
- 노계 { 백색
 유색

☎ (39) 9658

